

##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前者의 경우를 원한다. 만약 後者의 경우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세계는 情報化 時代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혹자는 세계의 氣가 태평양 시대로 흐른다고 희망적으로 말한다. 여러가지 흐름은 경제계에서도 치열한 경쟁 시대를 예보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에도 날카로운 시대 감각을 다듬어야 할 명제를 주고 있다.

우리 협회의 창립 당시에는 63층 빌딩도 없었다. 더구나 올림픽 개최는 꿈도 못 꾸던 터였다. 그러나 현대식 건물과 공장은 雨後竹筍格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保險市場의 흐름도 火災保險의 중요성보다 特種保險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양상으로 변할만큼 시대는 달라지고 있다. 우리 주변의 기업과 사회가 급변하고 꿈틀거리고 있지만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고 安住하는 자세를 가진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서 일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 왔기에 문제 감각에서 만성적 환자가 되었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소극적이고 무감각이 되어서 시대의 변천과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은 현재도 쉼새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 시가 급하다. 확실한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은 조직의 영원한 生과 發展을 위해 모두의 봉사와 희생이 요구되고 있는 절박한 때라는 것이다.

創立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이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앞날의 방향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할 것 같다.

매일 퇴근할 때마다 “아! 오늘 하루 우리가 회사를 위해 무엇을 기여했는가”를 생각하며 자기 분야에서는 1인자의 위치를 固守한다는 노력과 연구하는 태도를 항상 堅持하면서 말이다. 주위의 여건 변화에 신경을 쏟는 것보다 앞날의 여건은 우리가 만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함께 멩에를 메어야 할 것 같다. 협회를 위해 걱정하고 남을 판단하는 말만 하기에 앞서 衆智를 모으고, 우리의 나날 길을 구체적으로 그려 놓고 행동으로 협력하여야 하겠다.

방재 분야라면 우리 나라 다른 어떤 개인이나 단체들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많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협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